

[**종합·해설**]

한, 벌써부터 총선 공천 파열음

추측 “대통령 취임전후·대폭 물갈이 필요”

차측 “밀실공천 안돼 ... 1월 기획단 구성을”

한나라당 내부에서 내년 4월 치러질 제18대 총선 공천 시기와 방식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미묘한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주변에서는 인수위 업무 및 조각 등을 마무리한 뒤 내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로 공천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전 대표측에서는 “사실상 밀실공천을 통해 승자독식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며 1월 중 공천심사위원 혹은 공천기획단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 당선자 측에서는 대폭적인 물갈이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

어 내년 1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돼 온 공천갈등이 예상보다 빨리 불거지고 있다.

이 당선자의 최측근인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27일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에 출연해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만에 총선이 있다”며 “취임전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공천이 너무 일찍 불거져 나오면 취임전에 국회에서 할 일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공천을 늦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내 개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공천기획단 구성과 관련해선 “인수위가 거의 방향이 잡히고 국회에서 의결할 법안이 마무

리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천 준비위, 기획위가 발족하는 순간 모든 이슈가 공천에 밀린다”고 말하고 공천 기준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흐름을 담아낼 수 있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사를 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사무총장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기획단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 것이고, (시점은) 1월 중순 이후에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 시대가 시점에서 새로운 짐을 수행할 새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상당 부분 교체될 수 있다”며 대폭적인 물갈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 핵심 측근은 “공천은 공천대로 하고, 인수위는 행정부 관련 업무니

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라며 “공천을 늦게 한다는 것은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누가 봐도 뻔한 계산이 들어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측근은 “공천도 준비가 필요한데, 이를 취임시기와 맞물려 하겠다는 것은 결국 잡은 쪽에서 물밑으로 다 작업을 해 놓겠다는 것이고 이야말로 밀실공천이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금 있는 의원들에게 거수기 노릇이나 시기고, 공천할 때에는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해 살생부를 만들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측근 의원은 “공천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된다면, 박 전 대표도 거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서울로 올라온 鄭 ... 거취는

당분간 칩거 ... 정치권과 거리두기

총선통해 정치 복귀 시도 관측

쏠대서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대선 직후 광주 피정을 마치고 26일 상경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전 장관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대선 참패 후폭풍에 쌓인 대통합 민주신당 등 범여권 진영의 향후 진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정 전 장관이 조만간 백의종군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치권과 거리두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전 장관이 지난 21일 최고위원-상임고문단 회동을 통해 ‘백의종군’의 뜻을 피력했지만, 곧바로 호남으로 내려간 것과 관련, 대선 패배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내년 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및 쇄신 구성 등을 둘러싸고 당내 초선의원들이 참여정부 시절 당·정·청 핵심인사 그룹을 지목하며 내년 총선에서의 2선 후퇴를 주장함에 따라 정 전 장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지난 2003년 민주당에서 정풍운동을 주도한 정 전 장관이 불과 4년 만에 ‘제2의 정풍운동’의 대상이 돼버린 셈이어서 정치 입지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정 전 의장 측 핵심 관계자는 “당분간 정 전 장관은 정치적 칩거 생활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당대회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전 장관이 일정 기간 정치적 공백기를 가지겠지만 내년 4.9 총선을 통해 정치 무대 복귀를 시도하면서, ‘차기’를 위한 교두보 구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 전 장관이 지난 22일 전주 선대위 해단식에서 “큰 뜻을 이루려는 내 꿈은 완성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벌써 차기를 논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범여권의 구심점이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 전 의장이 역할론을 명분으로 전당대회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친(親) 정동영계로 분류되는 ‘김한길 그룹’이 전대 경선론을 치고 나오며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점에 대해 정 전 장관의 의의가 담긴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정 전 장관이, 합의추대론의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되는 손학규 전 지사측과의 ‘전략적 제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이 신당의 주도권 싸움에 휘말려거나 총선에 출마, 낙선할 경우 사실상 정치적 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해외에 나가는 등 정치권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7일 서울 남대문구 단암빌딩 사무실에서 보수신당 창당 기획단 강심재 단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창조한국당

‘장기 휴업’

문대표 공식 일정 전무

대선에서 137만여표를 끌어오며 저력을 과시했던 창조한국당이 대선 이후 당 공식 일정이 전무(全無)한 ‘장기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문국현 당 공동대표가 지난 2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연말에 꼭 쉬어야 내년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정말 모든 것을 잊고 2주간 쉬자”고 제안한 뒤 주요 당직자들은 거의 영등포 당사에 나오지 않고 있다.

문 대표는 연말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선거 기간 고생한 부인 박수애씨를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인재 영입을 위해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문 대표가 연말까지 다양한 외부 인사들을 접촉한 뒤 연초에 총선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대표의 구상이 나오면 당의 진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昌, 총선 출마로 ‘U턴’?

“신당 창당 동력위해 나서야” 압박 여론 거세

충남 홍성 출마설... 창사랑, 대구 서구 건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보수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총재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까지 정치권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전 총재 주변에서 신당 창당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전 총재가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총선 불출마’라는 이 전 총재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 것.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이 전 총재의 연고가 있는 충남 홍성·예산 지역 출마설까지 나온다.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중심당 삼대평 대표는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 총재가 당연히 총선에 출마해야 한다. (출마도 하고) 그렇게 가줘야 신당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이 전 총재를 ‘압박’했다.

여기에서 이 전 총재의 지지자 모임인 ‘창사랑’(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를 맡았던 백승홍 전 의원 등 대구지역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도 27일 오후 서울 사무소에서 이 전 총재를 면담하고 대구서구 출마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의원은 “이 전 총재가 당의 책임 있는 자리를 맡고 지역구에도 출마해야 하며 특히 대구출마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대구지역 가운데서도 이번 대선에서 높은 득표율을 보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인 대구서구 출마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친노그룹 대선 책임론 공방

위기탈출 쇄신 세미나

대선 패배 이후 대통합민주신당 내부에서 ‘노무현 대통령 책임론’과 ‘정동영 후보 책임론’ 등이 엇갈리며 정치적 쇄신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친노 그룹이 위기탈출 돌파구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신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해찬 전 총리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중심이 된 싱크탱크인 재단법인 광장 준비위원회는 27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한국정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광장’은 이 전 총리가 과거 신림동에서 운영했던 서점의 이름이면서 이 전 총리 지지자들의 모임 이름이기도 하다. 친노 진영이 ‘친노’ 피리표를 때고 ‘이회창 세력’으로 재편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친노 진영이 대선 참패로 맞은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이지만 동시에 노 대통령과의 연대

책임 차원에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는 친노 세력이 쇄신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한 시도로도 읽힌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발제자들은 대선 패배의 근본적 원인을 ‘명확한 정책적 부재’와 ‘정당정치 붕괴’로 지적하면서, 특정한 인이나 특정 세력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구조적 문제를 주로 분석했다.

김형주 의원은 “한국사회 변화와 새로운 정치노선”이라는 발제를 통해 “2007년 대선은 보수적 성장지상주의자들의 승리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의 패배”라며 “국민이 왜 우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기 탈출 해법은 국민 개인의 삶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곧 진보라는 ‘일상적 진보’와 국민에게 공정하고 보람되게 일하고 살고자 기회를 신장시키는 ‘실질적 민주주의’ 두가지”라고 요약했다.

/연합뉴스

민노 진로 위기 통합·분열 기로

대선참패로 최대 위기를 맞은 민주노동당의 진로찾기 작업이 내분 통합이나 분열 가속화나 중대기로 접어들었다.

당 지도부가 민중·민주계열(PD)의 심상정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낙점’했으나, 심 의원이 ‘전면적 권한 부여’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조건부 수용’ 방침으로 배수진을 치면서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

심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 체제가 국민에게 재평가를 받는 민노당 회생의 마지막 갈래가 되려면 그에 걸맞은 총체적 책임과 권한, 무기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의 권한과 관련, 그는 “그간의 성과 나눠먹기와 답답 관행에서 벗어나 총선을 돌파하려면 비례대표 선출 권한을 포함, 총선 시기까지 당 운영과 사업에 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완벽 대응 기회!!
최고의 직종들을 자랑하는 현대고시원용 고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영어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은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민중개사/주책관리사 합격설명회 =
베주 - (화,목) 오후 6시 - (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동부경향서원
www.hgosi.net (062)222-6790

= 겨울방학 대 특강!!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강좌 목록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모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설직, 물리화

◎수많은 선배 공무원들의 '無等' 선택은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개강: 1월 2일 주·야 (출퇴근)반모집 (합계 2일)

= 46년 전통의 無等은, 강의第一! 합격최다란 말을 듣고 있다 =

考試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향서원 (동명초교 후문) ☎ 222-4560
www.mdgoal.co.kr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급 공무원 겨울방학대특강

개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법행정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림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2008 공무원 합격설명회 일차 12월 29일(토) 15:30~18:30

개강 1차 12월 17일 2차 12월 22일 대개강 1월 2일 사전예약접수중 (9월중합격 300명) (7월중합격 400명)

한빛공무원학원 전대유명 부구청장 (062) 252-0252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자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대/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 교실 특강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주회 8주 2개월
- ★교육비: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동부경향서원 무등고시학원
- ★접수방법: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순천 교육장소 연향동사거리 인스티튜드 옆 GMB영어학원 3층
문의: (062)434-7857

★연말연시 각종 송년회, 동문회, 교회행사 등 각종 행사 출장 공연★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434-7857